



총회세계선교부 파송으로 칠레(1995~1999년), 필리핀(2006~2009년)에서 사역을 하다가, 2010년 페루선교회에 영입되어 서울동일교회의 주 후원으로 파송되어 페루 뿌갈빠에서 호산나 학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Rev. Jeong Wha Park |

🏠 Av. Centenario 1128, Pucallpa, Ucayali, Perú

☎ 국가번호(51) 61-57-3322(학교)

☎ (51) 9424-808-50(박정화)

✉ florespark61@gmail.com(박정화) 🌐 www.hosanna.edu.pe

 뿌갈빠(Pucallpa) 호산나 소식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녕히 내가 광야에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 19).

길 것 같았던 두 달 동안의 방학이 새 학년도 등록 마무리와 학교의 시설 보강 공사를 하는 동안 금세 지나갔습니다.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고 비가 그치기를 기도하며 하루 하루 줄어드는 2월의 날들을 세면서, 아이들이 돌아오기 전에 놀이터의 새 지붕이 다 완성되기를, 축구장의 샘처럼 깊어진 물웅덩이가 말라서 새 잔디를 깔수 있을만큼 되기를, 유치원 뜰에 짓고 있는 아이들의 놀이수업 공간이 완성되기를, 혹시 그리 아니될지라도 감사함을 잃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2월 중순의 교사연수 기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자니” (에베소서 2: 10). 학교의 레마인 에베소서 2: 10의 말씀을 따라 새로 온 교사들과 함께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이곳으로 부르신 주님 앞에서 함께 2025학년도를 준비하며, 올해 호산나에서 첫 해를 보내게 되는 신입생과 그 부모들을 초청하여 3월 입학식 전에 미리 학교생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날도 가졌습니다. 이제는 제가 일일이 나서지 않아도 교사들에게 맡겨놓으니 초등과 중등에서 오랫동안 함께 하였던 교사들이 계획부터 실행까지를 다 맡아주어서 감사했습니다. 유치원은 유치원 코디 교사의 지휘 아래 입학 하루 전 날에 온라인을 통하여 새로운 선생님과 각 반의 친구들, 학부모들을 미리 만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첫 날에 아이들이 유치원을 낯설어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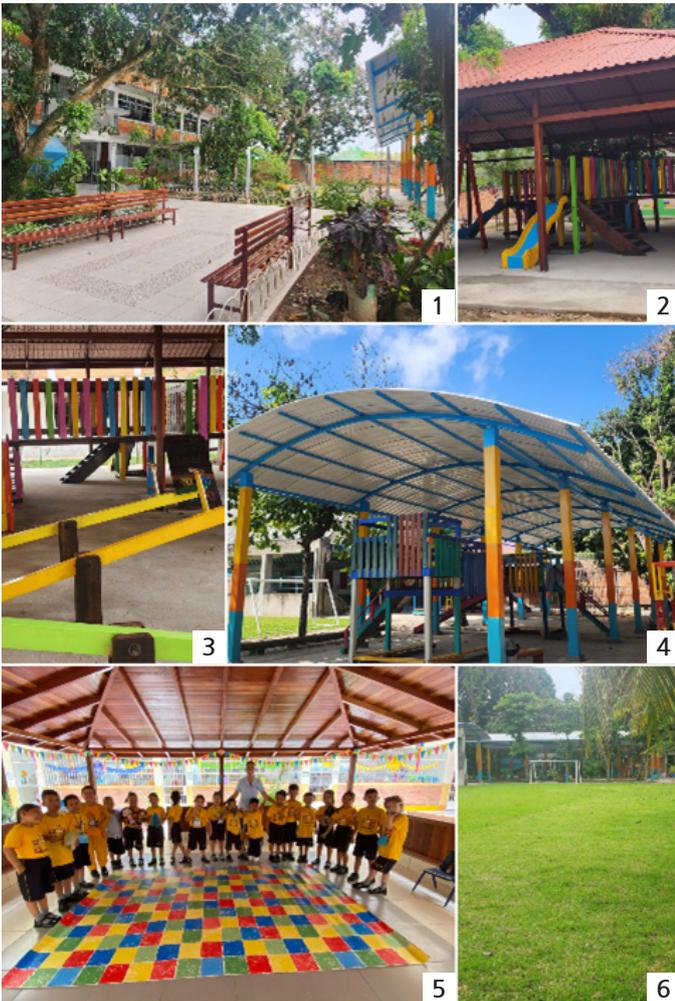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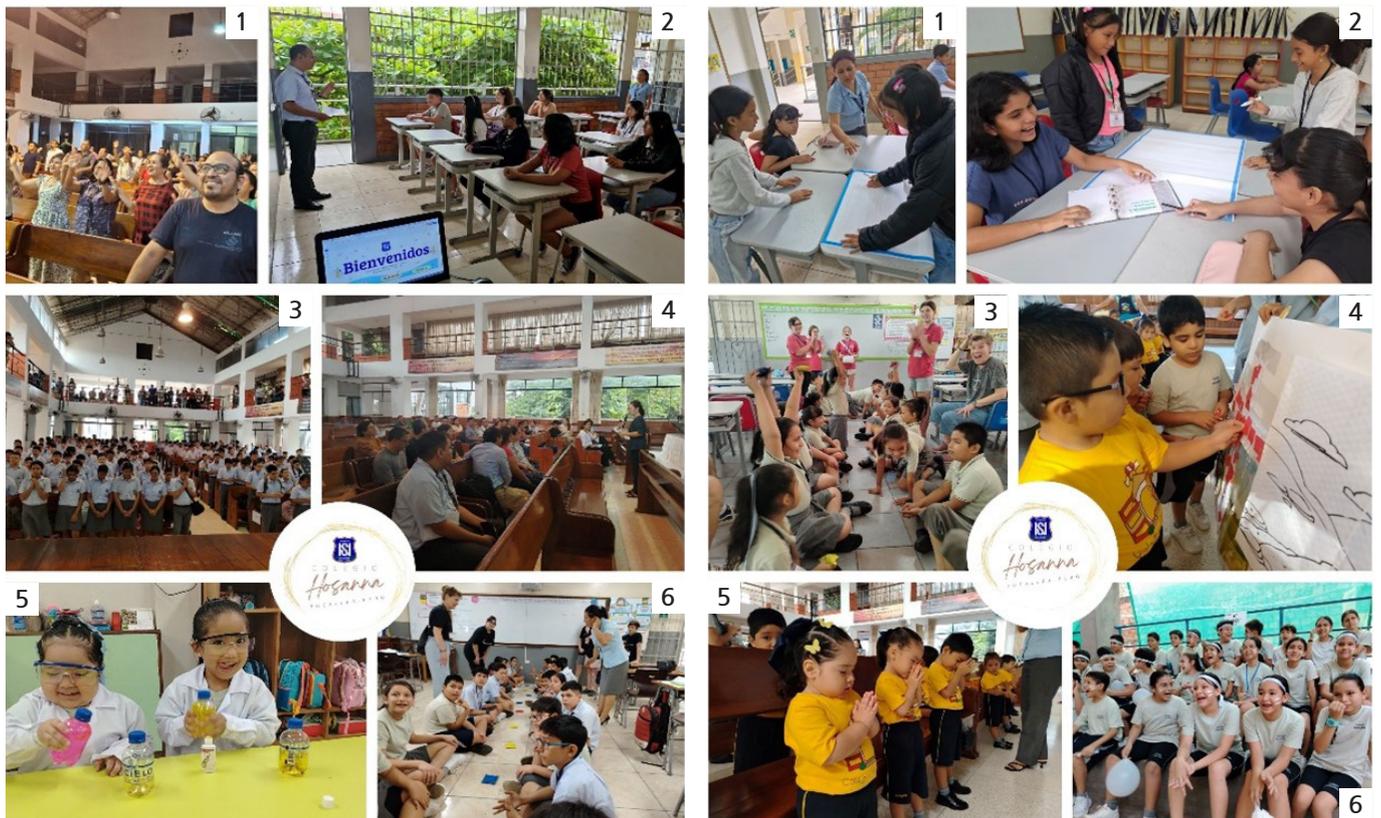


사진 : 왼쪽 윗쪽 부터 오른쪽으로 차례대로
 ① 화단을 줄이고 아이들의 공간을 확장한 학교 뒷뜰,
 ②③ 새로 지은 유치원 놀이공간,
 ④ 지붕을 새로 만든 학교 뒷뜰 놀이터,
 ⑤ 유치원 중앙 뜰에 만든 놀이 수업 공간,
 ⑥ 두 달에 걸쳐서 흙과 잔디를 모두 새로 입힌 축구장

올해는 3월의 첫 날이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올해는 3월 3일 월요일에 중고등학교가 먼저 새 학년도를 시작하고, 그 다음 날인 3월 4일에는 초등과 유치원이 학교를 열었습니다. 작년보다도 더 많은 학생들이 입학하여 올해는 전체 학생 687명이 호산나 학교의 3개 단위 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시는 줄 알고 학생들을 받았지만 좁은 교실에서 활발히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니 어떤 형태의 수업을 해 나가야 할지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올해도 중고등학교는 영어와 수학을 각 학년별로 3그룹으로 나누어 시행하기 때문에 영어와 수학 교실이 하나씩 더 필요하고, 초등 3학년은 교실과 교사의 부족으로 2개 학급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어서 한 학급에 25, 26명이 수업하는 과밀학급이 되었습니다. 아직 초등 3학년이니 몸집이 큰 중고등학생들의 교실과 비교할 때 그래도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신입 교사 자녀 1명을 더 받아주면서도 많은 염려가 되었는데, 마침 3학년을 맡은 담임 교사가 공립학교에서 조기 은퇴하신 교장 출신의 선생님이셔서 학급을 잘 운영하고 계시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 ① 초등 4-6학년 학부모 교실
- ② 신입 학부모 초청 오리엔테이션
- ③ 중고등 입학식
- ④ 교사 연수, 오리엔테이션
- ⑤ 유치원 3월 프로젝트 수업
- ⑥ SAM의 Happy School 방문팀과 함께 했던 초등 6학년 영어 수업

- ①② 신입 학생 초청 오리엔테이션
- ③ Happy School 방문팀이 함께 했던 초등 2학년 수업
- ④⑤ 유치원 고난주간 예배
- ⑥ 초등 미니 올림픽

늘 호산나가 어떤 학교가 되어야 할지에 대한 깊은 고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페루는 점점 성장하는 나라가 되고 있어서 감사하지만, 학교 운영에 대한 상황은 매년 더 민감해 집니다. 페루도 아직 우리 나라처럼 평등법이라고 부르는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계속 상정되고 있는 중이고, 공립학교 교과서는 이미 남녀 성 구분을 없애는 내용들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도 저처럼 염려하며 와서 질문하기도 합니다. 감사하게도 어제 영국에서 '평등법상 여성은 생물학적 여성'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세계적인 평등법 적용도 조금 달라지겠지만 계속 기도가 필요합니다.

Colegio Privado "Hosanna"

Somos Hechura de Dios,
creados en Cristo Jesús,
para buenas obras.

Efesios 2:10.

Seamos **Honrados** Seamos **Solidarios** Seamos **Nobles**



- 학교 입구에 걸려있는 호산나 학교의 레마 -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에베소서 2:10)

선교지의 기독교학교는 하나님의 좋은 복음이 이 나라와 온 땅 가운데에서 실제적인 삶의 가치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주의 자녀들이 길러지도록 세워진 학교입니다. 고난 기간에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i’, 주님의 구원이 더욱 선포되고,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이 더욱 많이 나타나는 호산나 학교와 페루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와 기도 제목

1. 호산나 학교의 2025년 학년도를 시작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유치원에 4명, 초등 1명, 중고등에 2명, 영어 교사 1명, 체육교사 1명이 새로이 합류하였습니다. 모든 교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 학부모들과 교사들, 교회들이 한 팀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지역교회들과도 연계하여 좋은 교육의 동역자들로 설 수 있도록 기도가 필요합니다.
3. 캄보베르데 지역의 교회들을 기억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작은 교회들이지만 그곳에서 교회로서 더욱 든든히 서가며, 세상의 빛된 역할을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자가 없기 때문에 작은 교회의 전도자, 혹은 리더들로 섬기고 있는 임멜 형제(IMMER SANDI, 알리안사 후베닐 교회) 와 다리오 형제(Dario Sisneros, 누에보 엔칸도 교회), 엘사 산디 자매(Elsa Sandi, 캄보베르데 교회) 와 윌프레도 형제(Wilfredo Sandoval, 로스 빠노스 교회) 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4. 그동안 기도해 주셨던 박옥수의 '기소선'은 페루복음주의협의회 CONEP에서 그 회원권이 완전히 박탈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3월 21일에 있었던 임시총회에서 만장일치 참석자 전원의 동의로 축출이 결정되어 이제 등기소에 총회결의안을 등기하는 절차만 남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만히 기존 교회 안으로 침입하여 들어온 가장 큰 세력이었는데 2년 동안의 싸움 끝에 옳은 결정이 나왔습니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선과 한국 이단들의 끊임없는 팽창이 전 페루 안에 가득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페루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단세력들이 '한국교회'라는 이름의 양의 털을 쓰고 교회들과 목회자들 속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한국교회의 이름이 현지 교회들을 어지럽히는 것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6. 총회 파송 선교사들은 현지교회의 교단과 협력하여 사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회의 선교정책입니다. 그동안 뿌갈빠의 교회사역자들은 ICP (Iglesia Cristiana Presbiteriana en Pucallpa) 교단 속에서 함께 동역해 왔으나 지난 4월 4일에 ICP와 ipXp교단이 하나로 연합하는 예배를 드림으로 페루의 모든 통합측 선교사는 ipXp라는 이름의 한 교단으로 통일된 교단과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지난 1년 동안 기도하며 준비해 온 것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뿌갈빠는 ipXp의 동노회에 속하게 됩니다. 교회들의 성장과 미래 지도자 배출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사진 : ipXp와 ICP 교단연합 예배 및 총회)

7. 페루선교 40주년 기념 대회(6월 10-6월 18일)를 잘 준비하고,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대회가 되도록 기도드립니다.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과 페루교회에서 참석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선교비전이 가득하게 넘쳐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페루, 뿌갈빠에서, 박정화 선교사 드림이다.

